

# 대중교통 혁신 이끌 기린대로 BRT 연내 개통

### 전주시, 호남제일문~한벽교교차로 9.5km 구간 11월 개통 예정

전주시가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 기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연내 개통기로 했다.

시는 총 3단계 28.5km 구간으로 계획된 전주 BRT 중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1단계 기린대로 BRT가 오는 11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도시 확장과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RT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BRT는 고령사회 대비 및 친환경 미래교통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개인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망과 교차로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교통체계 혁신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이 가운데 1단계인 기린대로 BRT는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교차로까지 9.5km 구간에 구축되며,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가로수 이식과 보도 후퇴 공정에 이어 △여의광장사거리~추천대교 △추천대교~기린로전자삼사 △기린로 전자삼사~오목대의 3개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BRT가 도입되면 BRT 구간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자가용 등 개인 교통수단만큼의 편리성과 신속성, 정시



운동장내거리 조감도.

성을 갖추게 돼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RT 도입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다.

무엇보다 BRT 도입은 도시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도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함으로써 독립된 차로 운영에 따른 선제 대응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BRT 도입과 대중교통 전환은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효과가 기대되는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시는 기린대로만으로는 BRT 구축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향후 2단계 백제대로와 3단계 송천중앙로까지 확장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8.5km의 새로운 대중교통축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기린대로 BRT 구축을 위해 지난 2021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운영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2024년), 지난해 4월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실시계획 고시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시는 근거법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BRT 국비 지원 대상이 광역시 등 대도시권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주권 BRT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률 개정에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12월 BRT 추진 대상 지역의 범위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으로 확대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 추진 시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는 시민단체와의 수차례 간담회와 시민워크숍 3회,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들과 함께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장은 "BRT 사업은 기존 버스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라면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주의 대중교통 혁신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위기·고립가구 복지 안전망 강화

### 전주시복지재단,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 공모

전주시가 올해도 복지공동체를 키워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6년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온도플러스 지원사업'은 공적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고립가구를 살펴 지역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사업이다. 단순한 물질 지원을 넘어, 생활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단은 올해 소규모기관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컨소시엄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고립가구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해 △함께 살피는 '이웃사촌' △함께 해결하는 '생활지원'



△다시 이어가는 '관계회복'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사회복지 기관·시설·단체와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단체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600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권희성 기자

# 제4기 전주시설공단 노동조합 출범

제4기 전주시설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강성필(사진))이 출범했다.

7일 공단 노조에 따르면 강성필 제4대 위원장과 송현욱 수석 부위원장, 이재현 사무국장을 주축으로 올 초 공단 노조 새 지도부가 꾸려졌다.

강성필 위원장은 지난 연말 송현욱 수석부위원장과 러닝메이트 선거에 나서 '차별 없는 공단'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됐다.

강 위원장은 2028년 말까지 3년간 노



조를 이끌게 된다.

강 위원장은 조직 규모 확대와 업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4급 팀장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는 합리적인 직제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직 직제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운영직은 직급 체계가 없어 승진이 불가능하고 임금체계도 일반직과 달라 불공평하다는 내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터다.

이에 강 위원장은 지난 신년사를 통한 운영직의 일반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동일 조직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형평성과 미래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 중앙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관광도시인 전주시에 7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전주 중앙성당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주시는 국가유산청이 1956년 완공된 후 현재까지 전주고 전주고구 주교좌본당으로 사용 중인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추진될 종합정비계획은 학술연구 및 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된다.



1960년대 중앙성당 전경

시는 이러한 정비계획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필요

한 예산을 확보해 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 중앙성당은 1950년대 전주교인이 늘어나면서 새 성전 설립의 요구에 맞춰 1960년에 완공됐다. 다음 해인 1967년부터 전주 전동성당을 대신해 전주고구 주교좌본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 성당으로 의미가 있으며, 전라북도 건축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건축가 김성근씨가 설계에 참여한 점과 최초의 설계 도면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

특히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지붕 상부에 독특한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탁트인 예배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일뿐 아니라 다른 성당과도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권희성 기자

국가유산청은 성당의 종탑 상부 조적 기법과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참조 및 출입문, 인조석 물갈기 마감은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수보존요소로 권고하기도 했다.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전주 중앙성당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주 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전주에는 지난 2006년 신흥고등학교 강당 및 분관 포치를 시작으로 중앙동 구 바다우, 다가동 구 중국인 포목상점, 전북대학교 분관,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에 이어 7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신년맞이 통장연합회 간담회 가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는 6일 덕진구청 3층 상합실에서 덕진구 통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맞이 덕진구 통장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동별 주요 현안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있는 덕진구 통장협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서는 각 동별 생활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덕진구 통장협의회 회장단은 지역 여건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덕진구는 겨울철 한파·대설·결빙 등 계절적 재난에 대비해 통장협의회 회장단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 제12회 무주 반딧불이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6년 1월 8일(목)~1월 9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북특별자치도스키협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